|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

비교법적 논의 마무리 쟁점 세분화, 노사단체 의견 수렴

위원회는 제33차 전체회의('20. 1. 30.)에서 노상헌 교수(서울시립대 법전원)의 발표로 『일본의 근로자대표제도』를 논의하였다. 독일, 프랑스에 이어 일본의 근로자대표제를 마지막으로 비교법적 논의가 마무리되었다. 이후에는 근로자대표제의 쟁점을 보다 세분하여 노사단체의 구체적인 의견을 모은다. 또한 제13차 공익위원 회의('20. 2. 13.)를 개최하여 그간의 전문가 발표 내용에 관하여 집중 토론을 하였다. '20. 3. 13.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코로나 사태로 취소되었고, 제34차 전체회의는 3월 말에 개최된다.